

# 한동훈 당 대표 사퇴... 여권 잠룡들 '조기 대선' 꿈틀

“최고위 붕괴...탄핵 찬성 후회 안해” 선출 146일만...대선행보 여부 관심 당 중진 “비대위원장은 당내 인사로” 홍준표·오세훈·안철수 등 대권 구도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를 나서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는 여권내 잠룡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양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는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며 “국민께 감사드린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도 감사드린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고맙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사퇴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62.8%의 지지를 얻고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당 사령탑 자리를 두 번 내려놓게 됐다.

한 전 대표의 다음 행보가 대선을 향한 지 관심사다.

이날 한 대표의 사퇴로 당내 대권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잠룡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며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탄핵 정국에서 한 대표에게 날을 세우며 탄핵 반대 선봉에 서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표결을 두고) 부역자나 출당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지금은 편 가르

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당내 계파간 내홍이 격화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가,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화했다.

7·23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았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행보도 주목된다.

원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배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던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며 “중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는 게 우리가 무슨 조폭인가”라고 다수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소신파인 안철수 의원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동훈 지도부 체제 이후 들어설 비상대책위원회 수장에 당내 인사를 지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이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조국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구절을 인용하며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로 예정된 수감일을 신변 정리 등 사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형 집행 이후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워졌다.

김선욱 기자

## 이재명, 경제·안보 광폭 행보... “국정혼란 수습”

국힘에 국정협의회 수용 재차 촉구 주한미국상의 회장 만나 동맹 강조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회’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수습에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며 차기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회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한 데 대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압박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렵고 정치적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며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당 차원에서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내년 추경과 민생입법 등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주요 의제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현안도 챙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리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담당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할 것을 거론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반도 평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대북·대미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국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외교 책사를 북한 관련 임무에 지명한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

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선은)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특사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여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북미회담 실현으로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등과 만나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외교·안보 공백에 불안감을 느끼는 중도·보수층을 의식한 것이라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서, 경제적, 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그 속에서 경제적 협력관계 역시 더욱 확장되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 北,尹 탄핵안 가결 “거센 반발·분노 야기” 보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으며, 이에 국회 일대에서 시민들의 규탄 시위가 일어난 사실도 보도했다.

매체는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지와 역지로 엮여진 담합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

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갈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했다.

계엄 선포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국방부 장관과 경찰장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부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우 의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체없이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위원 위촉식”을 열고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의 건설적인 회의·토론을 통해 신뢰받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규칙에 따라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각각 국회 몫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당 추천 몫 4명을 제외한

3명은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채워졌다.

특검후보추천위는 이날 위촉식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가 꾸러지면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추천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 상황에서 추천 의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이다.

김선욱 기자